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축일을 준비하는 3 일 기도
(8 월 31 일부터 9 월 2 일까지)

주제: 어머니요 여정의 동반자이신 마리아



도입

마리아는 특히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계속해서 앗아가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큰 우려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여정의 모델이자 동반자이신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성모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돌보심으로 제 8 차 중간총회(2021 년 9 월 20~30 일)를 거행하는 우리 수녀회도 동행하십니다. 이 시기는 "생명을 낳고 보존하는 사목적 모성의 예언적 선물을 성령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친교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안에서, 고통 받는 인류를 향한 선교의 새로운 도약 안에서, 마리아처럼 살아갑시다"라는 총회 목표를 재고하고, 함께 대담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여정을 위한 새로운 총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3 일기도 동안 교회와 창립자의 텍스트로부터 동반된 매일 전례의 복음으로부터 동반을 받도록 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어머니 마리아의 준비와 축일이 수도회의 친교와 일치 증진시키고, 우리가 사목적 모성애를 더욱 깊이 살도록 도와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구하시는,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

성가

도입

이 첫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의 주름 안에 숨겨진 모든 악을 몰아내고 자리를 비우고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도록 초대받습니다. 창세기는 여인이 악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말합니다. L'iconografia 와 교회 교부들은 이 텍스트를 마리아론의 키로 해석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악, 모든 죄의 악을 제거하고 그 미덕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지향: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지향으로 바친다.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례하나이다, 생명과 부드러우신분, 하례하나이다, 우리의 희망이시여,
오 순례자 동정녀여, 오 우주의 여왕이시여!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천국으로 가는 인간의 기쁨을 보소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이 눈물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우는 인류 가족의 고통을 보소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당신의 왕관의 보석의 광채로 우리를 장식하시고
당신이 순례자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순례자로 만드소서.
순결한 미소로 그리스도 교회의 기쁨을 되살리소서.
달콤한 시선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의 소망을 굳건히 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손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류 가족으로 일치시키소서.

(Fatima, 12.05.2017)

성령청원

-진리이신 예수-

하느님 말씀: 루카 4,31- 37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상시와 같이 안식일에 카파르나움에 가시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악령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남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 말씀

어머니는 믿음을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며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고 악에서 보호합니다. 마리아가 집에 있는 곳에 악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있는 곳에 악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는 소란이 만연하지 않고 두려움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중 누가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때때로 곤경에 빠지거나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마음이 근심의 바람이 그치지 않고 걱정의 바람은 멈추지 않는 폭풍우 치는 바다가 됩니까! 마리아는 홍수 가운데서 안전한 방주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어머니의 얼굴, 생명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손, 우리를 보호해 주는 어머니의 외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머니께 나아가며 피난처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프란치스코 교황, 로마, 2018.01.28)

창립자 말씀

마리아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창세 3:15). 즉, 그 처녀는 하와가 잃어 버린 은총을 되찾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다”(루카 1:30)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미래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기대되는 은총을 미리 받았습니. 그녀는 원죄의 결과 아래 있지 않았습니. 주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자신을 위한 장막을 마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티 없이 깨끗합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려면 죄를 없애야 합니다. 사도직을 하려면 죄를 없애야 합니다. 죄를 배제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을 세상에 줄 수 있습니다. (PrP III, 1948, p.10).

성찰

가장 인상적인 단어를 강조 표시하고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성찰을 심화하기 위해 나눕시다.

-길이신 예수-

- ✓ 묵상한 말은 내 삶에 무엇을 말해주는가?

- ✓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어떻게 구체화합니까?
- ✓ 나의 선과, 지역사회 및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내 마음의 침묵 속에서 마리아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방해하고 있는 악을 자각하고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은총을 마리아께 청합니다.

기도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과 당신의 양떼 중에 한 마리 양이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는 길 잃은 양이오니 죄인들의 피난처시여, 저를 구하소서.
 하늘나라의 길을 찾고 있사오니 착한 의견의 어머니, 저를 비취주소서.
 저는 겁 많고 연약하오니 능하신 동정녀여, 저를 당신의 두 팔에 안아 데려가 주소서.
 저는 이리에게 쫓기는 어린 양이오니 구세주의 어머니, 저를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소서. 당신 태중의 아들이신 성체 예수님으로 저를 양육하소서.
 저는 목자 예수님과 당신을 사랑하는 한 마리 양이오니 선한 목자 마리아님,
 항상 더 당신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죽을 때에 저를 받으시어 양순하고 충실했던 양무리에 들게 하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Coroncina a Maria Madre del Buon Pastore - 3ª parte)

치유하고, 기도하며, 사명을 수행하시는,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

성가

도입

이 둘째 날에 마리아와 함께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목상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것을 보여 주고, 기도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키웁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곳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선교하러 가십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향: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지향으로 바친다.

기도: 다음의 기도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일치합니다:

동정이며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부활의 새로운 열정을 저희에게 주시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아름다움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다다를 수 있게 하소서.

경청과 관상의 동정녀, 사랑의 어머니,
영원한 혼인 잔치의 신부, 교회의 지순한 모상이시여,
교회를 위하여 전구하시어 교회가 스스로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려는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시여, 친교와 봉사, 관대하고 열렬한 믿음
정의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에서 빛나는 증인이 되도록 저희를 도우시어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다다라 그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게 하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어머니, 작은 이들을 위한 기쁨의 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알렐루야!(복음의 기쁨 288)

성령청원

— 진리이신 예수 —

하느님 말씀: 루카 4,38-44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무를 행하시는지 보여 줍니다. 회당에서 나온 후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십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여인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설교하시고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다른 곳에서도 선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초대이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마리아도 섬김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6

교회 말씀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이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제자들도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이 복음화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결실도 없고 앞은 캄캄하고 지쳐 버리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나자렛에서 보낸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직접 이러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 안에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표현을 사용하면- 일종의 ‘신앙의 밤’과 연결된 특별한 마음의 부담, 곧 보이지 않는 분께 다가가고 신비와 친교를 이루며 살고자 통과하여야만 하는 일종의 ‘장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마리아께서 여러 해 동안 당신 아드님의 신비와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시고, ...당신의 ‘신앙의 순례’를 계속해 나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복음의 기쁨 287)

창립자 말씀

선한 목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대한 여러분의 신심이 이번 달에 잘 느껴지고 선한 목자와 같은 마음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사목적 마음이 더욱 잘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특히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는 이것을 위해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의 수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사도직에 비하면 적으니: pusillus grex(루카 12:32), 작은 양떼, 그러니 성소자, 성소자, 성소자를 청하십시오!

«당신의 순결한 피로 티 없으신 어린양의 그토록 아름다운 마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녀 마리아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모님과 함께 사목적 마음이 양성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많은 수단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공동체 전체를 함께 돌볼 뿐만 아니라 각 공동체를 돌보십니다. «당신의 순결한 피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마음, 세상이 구속하신 티 없으신 어린양의 마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형성하신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AAP 1961, 179.181)

숙고

우리에게 가장 와 닿은 단어를 강조 표시하고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숙고를 심화하기 위해 나눕시다.

- 길이신 예수 -

- ✓ 이 텍스트를 통하여 예수와 마리아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 ✓ 선한 목자 예수 성심의 어떤 측면을 마리아께서 내 안에 형성하시기를 바라는가?
- ✓ 나와 공동체와 사람들의 선을 위해 마리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7

- 생명이신 예수 -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께 무엇을 말하게 합니까?
마음의 침묵 속에서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

선한 목자의 어머니요, 저의 어머니 마리아님,
갈바리아에서 당신이 받으신 고통을 관상합니다.
거기서 당신의 아들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분의 양떼와 교회의 목자들을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당신은 믿는 모든 사람과 사제들을 맞아들이고자 마음을 여셨습니다.
당신은 초대교회를 불들어주셨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켰으며,
모범으로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항상 하느님 백성을 돌보시어 당신을 통하여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많은 성인이 나게 하시며, 악의 세력을 눌러 이기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더욱 온순하고 신심 깊고 굳센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능한 전구로 한 목자 아래 하나의 양 우리만 있게 하소서.
교황을 격려하시고, 신앙의 스승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며,
영혼의 모든 목자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Coroncina a Maria Madre del Buon Pastore - 2ª parte)

예수님의 부르심과 따름을 동반하시는 마리아

성가

도입

이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소명을 나누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서 더욱 가까이 따르라는 예수님의 호소에 응답하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마리아의 인도를 받고 모든 상황에서 마리아께서 동행한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향: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지향으로 바친다.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어머니,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과 그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 땅을 떠나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소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부름을 받는 환난과 십자가의 순간에 그분의 사랑을 믿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에 부활하신 분의 기쁨을 심으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키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그분이 우리의 길을 비추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빛이 해가 지지 않는 그 날,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의 아들이며,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 항상 자라게 하소서! (*Lumen Fidei* 60).

성령청원

-진리이신 예수-

하느님 말씀: 루카 5,1-11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러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노련한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매일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르고 선교하는 이 여정에서 마리아는 우리와 동행합니다.

교회 말씀

마리아는 우리에게 오해와 고통의 현실에 가까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산책이나 짧은 방문이 아니며 “연대 관광”도 아닙니다. 고통의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의 편에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어머니를 섬세하게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겪는 사람들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만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고 동행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움의 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참여하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용기를 내어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살게 하는 압제 상황을 끝내도록 돕습니다.

(Omelia di Papa Francesco, Lettonia, 24.09.2018)

창립자 말씀

교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며 그분은 첫 번째 빠스토렐라이시다. 첫 번째 빠스토렐라! 마리아는 빠스카를 향한 40 일간, 즉 빠스카를 지내는 공동체를 동반하시고, 목자들을 지원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자들을 동반하십니까! 다락방에서 마리아는 어머니, 여왕, 기도의 스승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 그분은 목자들의 어머니로, 즉 사도들과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빠스토렐라로서의 직무를 목자들과, 목자들의 양들에게 즉, 추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며 추종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에게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항상 기도로 활동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항상 선한 목자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갈바리오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셨고, 그분께 커다란 지혜와 힘과 선과 자비로 충만한 커다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AAP 1964, 104.113)

숙고

우리에게 가장 와 닿은 단어를 강조 표시하고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숙고를 심화하기 위해 나눕시다.

10

- 길이신 예수 -

- ✓ 이 순간 나와 공동체와 본당 공동체에게 이 말씀은 어떤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 ✓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 생명이신 예수 -

침묵 안에서 감사드리며, 용서와 도움을 청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느끼게 하는 영감과 빛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은 우리의 목자시니
아직도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메는 흩어진 당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죄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며,
나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번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임종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성인들이 많이 나게 하고 사도들과 선한 목자들을 보내주소서.
어머니, 당신은 저희가 눈물의 골짜기에 살고 원수들 가운데서 걸으며,
부서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애로운 눈길을 저희에게 보내소서.
인류가 당신 아닌 누구에게 희망을 두오리까.
마리아님, 인류를 길 진리 생명이시요, 모든 사람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이끌어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인도주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Coroncina a Maria Madre del Buon Pastore - 5ª parte)

.....

삼일 기도를 준비해 주신 *Terceira Légua – Provincia di Caxias do Sul* 의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Roma, casa generalizia sjbp, agosto 2021